

겨레와 함께 세계를 선도하는 서울대학교

I. 'Global SNU' 세계 10위권 도약을 위한 발걸음

서울대는 세계 초일류 대학으로 도약하기 위해 그 동안 축적해온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다양한 기폭제를 마련하는 데 부심하고 있다. 이장무 총장은 2006년 8월 취임과 동시에 서울대가 겨레와 민족을 위한 국내 최고 대학으로서의 위상을 지켜나가는 것은 물론, 세계를 선도하는 일류대학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시야를 국내에만 두는 것에 머무르지 않고 서울대의 국제화, 'Global SNU'라는 국제화 프로젝트를 주요 과제로 선정하여 세계 10위권 대학을 목표로 21세기 새로운 패러다임을 구축하기 위해 미래지향적인 발걸음을 계속하고 있다.

서울대는 세계 40개국에 산재해 있는 550여 개의 우수 대학과의 학술교류협정을 체결한 것을 비롯하여, 해외 석학 초빙 및 우수 외국인 학생 유치, 외국어 강의 확대 등 국제화를 위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집중적인 노력은 세계 일류대학으로의 진입을 위한 든든한 토대가 되고 있고, 나아가 세계를 선도하는 대학으로 우뚝 서기 위한 발걸음을 더욱 가속화시키고 있다.

II. 세계 일류 대학을 향한 서울대학교의 비전

지난 2006년 8월 이장무 총장은 변화와 혁신을 바탕으로 대학의 국제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과제로서 국제화, 장기발전 계획, 멀티 캠퍼스 조성 등 서울대의 세계 일류 대학 도약을 위한 청사진을 밝혔다. 이를 위해 9개월 여 동안 학내 구성원들의 다양한 의견수렴을 거쳐 '2025년 세계 10위권 진입'을 목표로 하는 장기발전계획을 내놓았고, 마침내 2007년 6월 그 첫 발걸음을 내딛었다.

장기발전 계획은 '겨레와 함께 세계를 선도하는 서울대학교'라는 비전을 토대로 ▶올바른 사고와 실천적 지혜를 갖추고 열린 마음으로 봉사하는 인재 양성 ▶21세기를 이끌어갈 지식과 기술을 창조하여 학문과 예술의 창달에 기여 ▶겨레의 대학으로서 민족문화를 계승 발전시키고, 나아가 세계의 대학으로서 인류공존공영의 정신으로 세계 문화를 선도한다는 발전목표를 수립하였다.

2010년 세계 50대 대학 및 10개 분야에서 세계 10위권에 진입하고 2015년 세계 30대 대학, 2025년 세계 10위권의 대학으로 도약하기 위한 구체적인 목표가 수립된 것이다.

세계일류대학으로 가는 길에는 대학의 자율성 확대라는 과제가 놓여 있다. 서울대는 대학의 자율성 확대를 위한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고자 2008년 1월 ‘서울대학교 자율화 추진위원회’를 발족하였고, 여기에서 입학전형제도, 학사관리, 예산편성 및 재정운영, 인사관리, 대학의 지배구조 개선방향 등 대학 운영 전반에 관한 문제들을 중점적으로 검토한다.

특히 대학의 자율적인 결정권을 대폭 확대한 포괄적인 학사관리제도의 도입과 책임운영제를 기반으로 하는 행·재정 지원, 대학 특성에 맞는 자율적인 입시 및 학생 선발권 보장, 교육과 연구의 질 관리를 위한 자율관리 시

스템 강화, 대학평가 시스템 정비, 대학의 사회적 책무성 확대 등이 중점과제이다. 서울대는 4개월여의 논의 끝에 우선 지난 5월 입학전형, 학사관리, 조직·인사·행정, 예산 및 재정, 연구 등 5개 분야에서 서울대의 자율화 과제를 마련하여 교육과학기술부에 건의하였다.

Ⅲ. 국제화 프로젝트 추진

국제경쟁력 향상을 위한 첫 발걸음은 2007년 1월 ‘국제화 7대 프로젝트’의 수립이었다. 세부계획으로 ▲세계

서울대학교 20년 장기 비전

●◎ 사명

- 올바른 사고와 실천적 지혜를 갖추고 열린 마음으로 봉사하는 인재를 양성한다.
- 그동안 축적해온 모든 지적 역량을 모아 21세기를 이끌어갈 지식과 기술을 창조하여 학문과 예술의 창달에 기여한다.
- ‘겨레의 대학’ 으로서 민족 문화를 계승시키고, 나아가 ‘세계의 대학’ 으로서 인류 공존공영의 정신으로 세계 문화를 선도한다.

●◎ 단계별 발전목표

서울대에서의 교육을 세계 최상급 수준으로 격상시키기 위해 모든 노력을 경주

연구의 질적 수준을 획기적으로 높이기 위한 노력, 특히 첨단 및 학제간(또는 융합분야)연구의 집중 지원으로 세계 정상급 연구 성과를 이룩함

교육과 연구 수준의 위상 강화로 대학의 국제화 달성(세계 속에서 아시아권 최고 거점 대학으로 부상)

1단계(2007~2010)

세계 50대 대학으로 발전
(10개 분야에서 세계 10위권 진입)

2단계(2010~2015)

세계 30대 대학으로 발전
(30개 분야에서 세계 10위권 진입)

3단계(2015~2025)

세계 10위권 대학
(50개 분야에서 세계 10위권 진입)

●◎ 중점과제

- 대학의 자율성 확보와 운영체제 혁신
- 미래사회 인재 육성
- 세계 최고 수준의 교수진 확보
- 국제화 체제 강화
- 중점분야의 세계적 연구 수월성 확보
- 첨단 및 융합 분야 육성
- 한국학 진흥 및 세계화
- 글로벌 리더십 캠퍼스 조성
- 장학·복지 제도 개선
- 대학 재정의 획기적 확충
- 교육·연구 윤리 강화·사회 속의 대학 구현



▲ 2007 세계대학 총장 포럼

석학 초청 국제하계강좌(ISI, International Summer Institute), ▲국제회관(I-HOUSE)건립, ▲신문화 프로젝트 ▲국제 인턴십 프로그램 확대 ▲세계학회 지원사업 ▲해외 우수학생 유치 등을 추진하고 있다.

첫 국제하계강좌에는 2007년 6월부터 6주간 한국학과 동아시아 역사 등을 중심으로 한 학부 3개 강좌, 대학원 1개 강좌에 100여 명의 국내외 학생들이 참여했다. 세계적인 석학들이 진행하는 수준 높은 강의와 국내외 학생들의 창의적인 토론이 함께 어우러져 '관악의 아이비리그'라는 평가에 손색이 없었다. 2007년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에는 학부 9개 강좌, 대학원 1개 강좌 등 총 10개 강좌를 개설하였으며, 국내외 학생 150여명이 참가할 예정이다.

특히 동아시아와 중앙아시아에 대한 국제적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반영하여 기존 한국학 강좌에

Constructing Identities in Modern East Asia(근대 동아시아의 정체성 이해), Law&Society in Contemporary East Asia(현대 동아시아의 법과 사회) 등 동아시아 및 중앙아시아 문명 관련 강좌를 확대하여 커리큘럼을 구성하였다. 교수진은 하버드대 David McCann 교수(한국학), 스탠포드대 Andrew Walder 교수(사회학), 컬럼비아대 Xiaobo Lu 교수(동아시아 연구), 예일대 동아시아 언어학 및 문학부 John Whittier Treat 학과장 등 한국학과 동아시아 분야 석학 20명으로 구성하였다.

이와 함께 '외국인 교수 초빙위원회'를 운영하며 노벨상 수상자급의 세계 석학 100명을 단계적으로 초빙한다는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고 있다. 석학 초빙의 일환으로 1970년 수학의 노벨상이라고 불리는 '필즈상'을 수상하고 미국 하버드대와 컬럼비아대 교수를 지낸 히로나카 헤이스케 교수를 수리과학부 석좌교수로 초빙하였으며, 5월에는 오존층 감소에 관한 연구로 1995년 노벨 화학상을 받은 파울 크루텐 박사를 지구환경과학부 석좌교수로 초빙하였다.

국제적 수준의 교육 및 연구 여건을 마련하여 진정한 국제경쟁력을 갖춘 대학으로 성장하기 위해 세계의 우수한 대학들과 교류를 활성화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서울대는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2007년 6월 현재 세계 40개국 550여 대학과 학술교류협정을 맺고 활발한 교류활동을 추진 중이다. 명분만의 교류가 아닌 실질적인 교류 확대 차원에서 공동학위 및 복수학위제의 확대를 추진하고 있으며, 동경대와의 화상강의 실시 등 공동강좌 개발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또한 국제무대에서 당당히 겨룰 수 있는 미래사회 인재 육성을 위한 글로벌 프로그램도 마련하였다. 경력개발센터는 서울대 학생들을 글로벌 리더로 육성하기 위한 해외인턴십 프로그램인 GTP(Global Talent Program)을 2007년 8월부터 도입하여 학생들의 호응은 물론 글로벌 기업으로부터 긍정적 평가를 받았다. 지난해에는 Morgan Stanley, Bloomberg, Standard Chartered Bank 등 홍콩의 금융 글로벌 기업에 학생 10명을 파견

세계 지식인의 글로벌 허브, 서울대학교

- 영국 The Times(2007) 세계 51위
- 상하이교통대학 세계대학평가(2007) SCI 논문발표 세계 31위
- 프랑스 에콜 데 민 파리(그랑제콜) 세계 500대 기업 경영자 배출능력 평가(2007) 세계 32위
- 중국과학기술평가원 발표 공학부문 연구실적 세계 7위
- 중국과학연구소 세계대학평가(2007) 세계 75위
- 세계 40개국 557개 대학과 학술교류협정
- 영어강의 474개 강좌(2007. 1학기), 460개 강좌(2007, 2학기) 개설
- 2,600여 명의 외국인 학생 수학(2007)

하였으며, 2008년 1월에는 6대 1의 경쟁을 뚫고 선발된 15명의 학생들이 P&G, Braine & Company 등 싱가포르 주재 글로벌 기업 8곳에서 비즈니스 전략 등을 중심으로 한 인턴십 활동을 가졌다. 이외에도 스탠포드와 예일 연수프로그램, 하버드 엔칭 프로그램 등 세계의 인재들과 경쟁하며 글로벌 리더로 성장할 수 있는 다양한 글로벌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학내 구성원 다양화와 지원 확대를 위한 노력들도 다양하다. 2007년 50여 개 국에서 온 2,600여 명의 외국인 학생들이 서울대에서 수학하였으며, 우수한 외국인 학생 유치를 위한 실크로드 장학금과 GSFS 장학금을 비롯하여 경제적 상황이 곤란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장학금을 지급하는 등 다양한 기준의 장학제도를 마련하였다. 또한 안정적 연구와 교육 여건 마련을 위하여 한국 문화 적응을 위한 외국인 전용 기숙사인 BK국제관의 운영하여 현재 900여명(일반 사생동 포함)이 거주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단과대학별 특성을 반영한 다양한 국제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2006년 전체 강의 중 5%에 불과하던 영어 강의는 2008년 12%수준까지 크게 늘어났다.

IV. 융화와 개방을 통한 교육 및 연구 여건 개선

대학 본연의 역할 수행을 위하여 교육 및 학문 간의 융합을 통한 연구 활성화, 교육과 연구 여건의 획기적인 개선 방안 역시 적극적으로 모색 중이다. 대학 본연의 역할은 창의적 지식 창출과 확산이라고 할 수 있다. 서울대는 개방과 융화의 정신을 바탕으로 학문과 기술 발전을 가속화하기 위해 학문간 융합을 촉진하고 첨단기술 개발을 선도할 멀티캠퍼스 조성을 본격화하고 있다. 2008년 차세대 융합기술연구원이 경기도 광교에 지하2층, 지상16층 규모로 완공되었으며 그린바이오첨단연구단지과 국제과학융합연구단지 BIT포트 조성 역시 진행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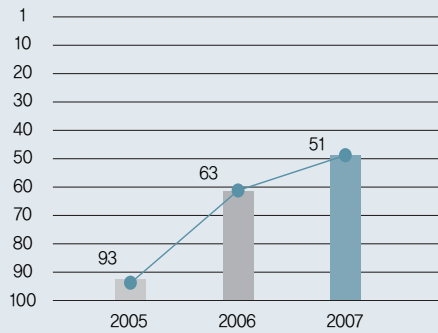
연면적 58,552m²의 차세대 융합기술 연구원은 나노, 융

합생명공학, 차세대자동차, 지능로봇, 소프트웨어 및 디지털미디어, 환경에너지자원, 정보기술, 건설교통, 법학문통합 등 9개 산하 연구소로 이루어져 있으며, 교수 130여명과 연구원, 관련 기업 연구소 및 연구원들이 입주해 IT(정보기술), BT(생명공학기술), NT(나노기술)의 융합을 통한 차세대 성장동력산업을 연구한다. 서울대가 보유하고 있는 연구역량을 한껏 발휘할 수 있는 국제적인 '차세대 복합 연구단지'가 마련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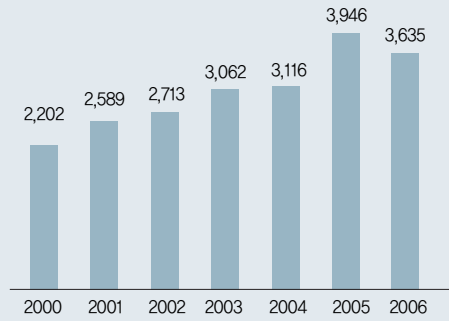
강원도 평창에 2010년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는 그린바이오첨단연구단지는 산학협력방안 논의, 환경평가 등을 중심으로 한 최첨단 R&D센터 건립을 목전에 두고 있다. 인천 경제자유구역 청라지구에 2017년 조성 예정인 BIT(바이오 정보기술) 포트단지는 BIT, BT(바이오기술), IT, EB(교육 및 산업화), CF(지원시설) 등 5개 구역으로 이루어지며, 상주인구 4,500여명, 유동인구 20,000여명에 이르는 학문간 분야를 허무는 융·복합 연구기술단지이다.

세계적인 연구성과의 창출과 교수들의 연구 여건 개선을 위해 'one stop online system' 구축 등 선진국 수준의 연구행정 시스템을 마련하였다. 지출 기관별로 집행하던 연구비를 2008년 4월 확대 개편된 산학협력단으로 일원화한 것이다. OSOS연구행정 시스템은 연구비 중앙관리 및 전산화, 연구업적 관리 등 연구행정을 일원화 하여 올해 1월부터 연구비의 계약, 관리, 집행 등에 효율성을 높이고 있다. 이와 더불어 신입교수 정착 지원금 제도와 국제학술회의 참가 지원, 외국 학술지 논문게재료 지원 등 다양한 연구지원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이러한 연구단지 조성 과 연구여건 개선 노력의 결과, 부족한 재정 현실에도 불구하고 연구의 질적, 양적인 측면에서 국제적으로 두드러진 성과를 낸 분야도 많이 있다. SCI 논문 순위에서는 세계 30위권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피인용 횟수는 미국 대학 최상위권 수준에 이르고 있다. 특히 총 투입예산과 비교한 SCI 논문 편수는 0.48로, 하버드대 0.33편, 도쿄대 0.38편, 스탠포드대 0.18편 등 세계 우수 대학 수준을 훌쩍 넘어서고 있어, 서울대의 세계적인 연구수준을 증명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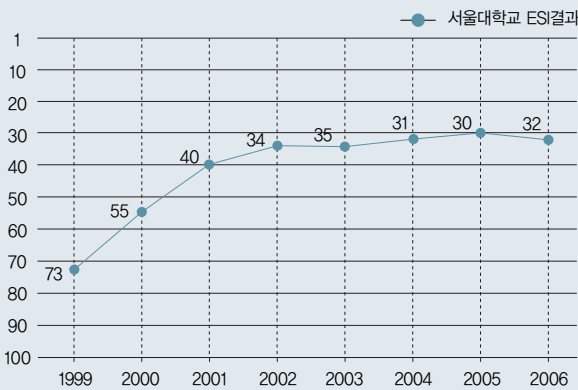


The Times '세계 200대 대학 평가 순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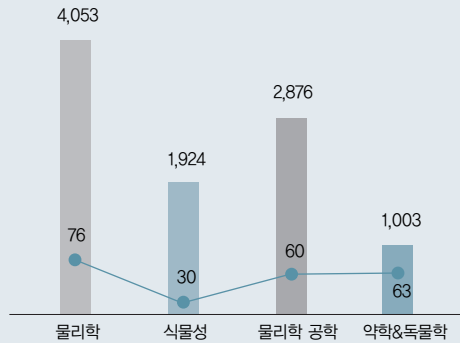
출처: Analysis of Scientific and Technical Papers (교육인적자원부, 2000~2006)

과학기술논문색인(SCI) 논문 발표 수



출처: Analysis of Scientific and Technical Papers (교육인적자원부, 2000~2007)
ESI: Essential Science Indicator

과학기술논문색인(SCI) 세계 순위



참조: SCI DB 평가자료, 교육인적자원부, 2006
ESI: Essential Science Indicator
* 상기표는 선정된 15개 분야 중 일부분야(4개분야)만 발췌하였음

ESI기준 분야별 논문수 및 세계순위

Research Activities

대학은 연구기관인 동시에 교육기관이기도 하기 때문에, 학생 교육을 위한 노력도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학제간 교육 시스템을 바탕으로 창의력과 상상력, 변화에 대한 적응 능력, 세계인으로서의 소양과 자질, 리더십을 갖춘 글로벌 인재 육성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미래사회의 요구에 부응하고 미래를 선도하는 인재 양성을 위해, 복수전공, 연합전공, 연계전공, 학생자율설계 전공 등 전공이수제도를 다양화하였고, 폭넓은 교양과 전

문지식을 두루 갖춘 인재육성의 토대를 마련하였다. 특히 학문 분야 간의 교류가 자유롭게 이루어지는 교육과 연구 활동을 위해 광역적인 차원에서 학생을 선발하는 자유 전공 학부 대학의 신설을 준비하고 있다. 자유전공 학부대학은 특별한 전공 없이 다양한 전공을 수강할 수 있고, 졸업에 즈음하여 2개 이상 전공을 선택하는 자율전공시스템이다. 또한 리더십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과 지원을 전담할 리더십센터를 올해 3월 설립하였다.

V. 사회와의 '소통' -봉사하는 서울대

서울대는 냉철한 이성으로 사회 정의를 실천하면서 주변을 배려하고 사회에 봉사하는 실천적 지혜, '프로네시스'를 갖춘 인재육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캠퍼스에서 배운 지식을 사회에 나가 실천하는 진정한 지식인 육성을 위해 2006년 10월 프로네시스 나눔실천단을 발족했다. 프로네시스 나눔실천단은 노블레스 오블레주(nobless oblige)와 앙가주망(engagement)의 실천, 지식의 지역 사회 환원, 실천적 지성 및 리더십 함양 등을 목표로, 도서벽지 등 교육환경이 열악한 지역을 방문하여 교육봉사 활동과 함께 '사랑나누기 자선 음악회' 등 문화적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다.

기초교육원은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는 따뜻한 마음을 지닌 진정한 리더 양성을 위해 '사회봉사'를 정식 강좌로 개설하였다. 사회봉사 1, 2는 국내활동이며, 사회봉사 1, 2를 모두 이수한 학생 중 우수한 학생 일부를 선발하여 해외봉사활동을 하는 사회봉사3에 참여하도록 하였다. 사회봉사3의 수강학생들은 2008년 1월 러시아와 인도 낙후지역을 찾아 한국문화 전파, 교육, 시설 보수 등 다양한 활동을 펼쳤다.

VI. 발전기금 '비전 2025 프로젝트' 추진

서울대는 세계 우수 대학으로 발돋움하기 위해 '비전 2025 핵심 추진 사업'을 수립하고 모금 프로젝트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세계를 향한 힘찬 도약', '사회와 함께하는 대학', '미래를 위한 변화와 준비'를 목표로 세계석학초빙, 핵심인재 육성사업, 대학지적자산 육성사업 등 구체적인 프로젝트를 마련하였다. 각 핵심 사업마다 발전기금 모금 프로젝트를 수립하여 기업, 동문 등 기부자의 참여를 적극 유치하고 명예의 전당 설치, 대학 추진사업 참여 확대 등 기부자 예우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서울대의 재정 규모는 연간 8000억 원 수준으로 영국 더 타임스 평가 1위인 하버드대(2조8000억원) 수준은 물론 도쿄대 (17위, 2조 1000억 원) 수준에도 크게 못 미친다. 2025년 세계 10위권 진입을 위해서는 2025년까지 선진국 수준의 재원이 요구된다.

2008년 5월 학내 구성원들의 참여를 통해 우리 대학 비전을 공유하고 실현해 가기 위한 '작은 참여 캠페인'을 시작하였다. 서울대 구성원의 의지와 마음을 한데 모아 세계 일류대학을 위한 조용하지만 힘찬 첫 발걸음을 내딛은 것이다.